

기초웹개발론

하진수

<https://goo.gl/R47xXb>

Kakao

Mobile & Responsive Web Part 2

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

- 그리드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해 플렉스 박스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방법
- 여유 공간에 따라 너비나 높이,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
- 화면 크기에 따라 레이아웃의 배치나 크기를 조절해야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



Kakao

플렉서블 컨테이너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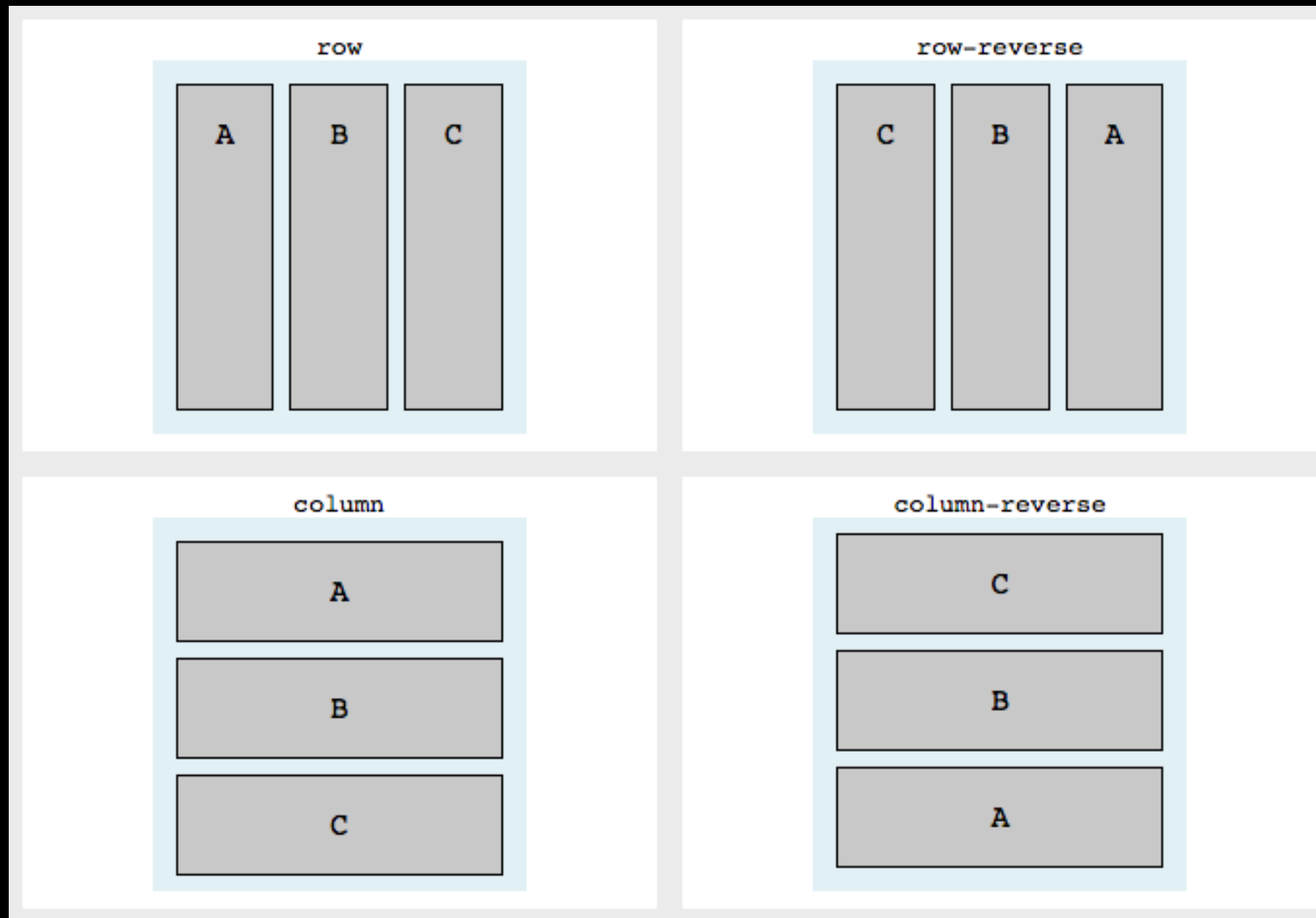
-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웹 콘텐츠들을 플렉스 컨테이너로 묶어 주어야 함
- 배치하려는 요소들을 감싸는 부모 요소를 만들고 display 속성으로 플렉스 박스 형태를 지정
- display : flex | inline-flex
 - <https://caniuse.com/#feat=flexbox>

```
.wrapper {  
  display: -webkit-box;  
  display: -moz-box;  
  display: -ms-flexbox;  
  display: -webkit-flex;  
  display: flex;  
}
```

flex-direction 속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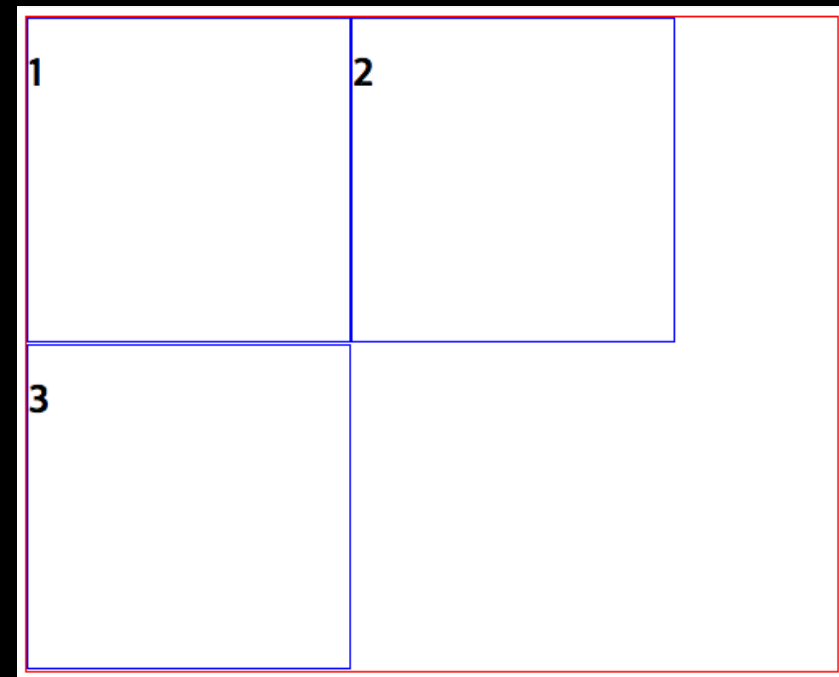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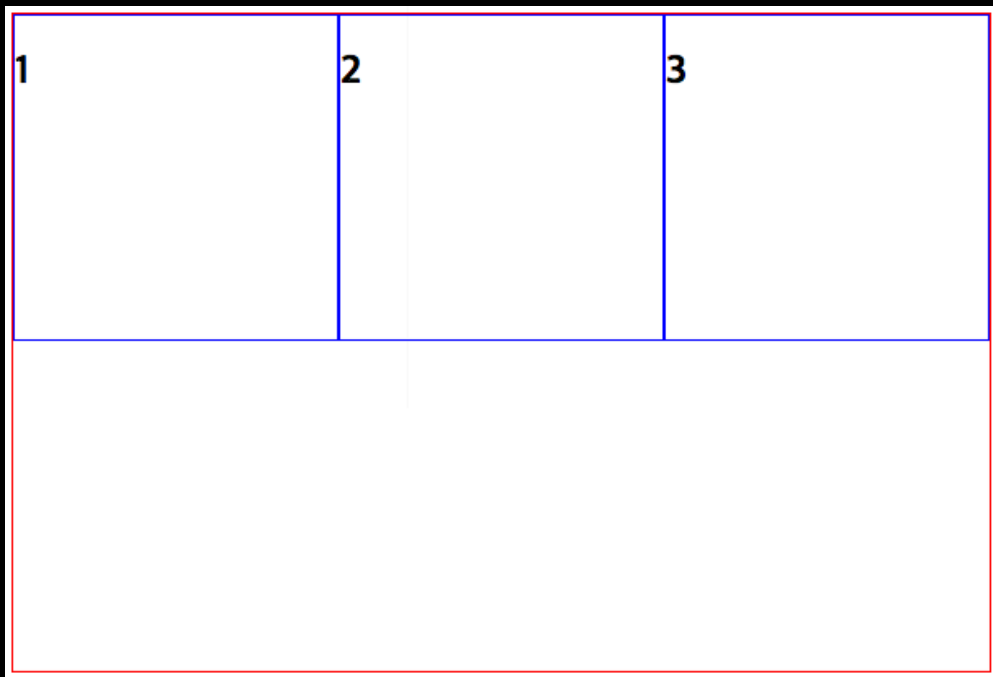
- 플렉스 방향 지정하기
- flex-direction 속성을 이용해 플렉스 항목의 주축을 가로(row)로 할지, 세로(column)로 할지 지정. 기본값은 row
- flex-direction: **row** | row-reverse | column | column-reverse

flex-direction



flex-wrap

- 기본적으로 플렉스 항목들은 주축 방향을 따라 한줄로 배치됨
- flex-wrap 속성을 이용하여 여러 줄에 걸쳐 표시가 가능함
- flex-wrap: no-wrap | wrap | wrap-reverse



flex-flow

- 플렉스 방향(flex-direction)과 여러 줄의 배치(flex-wrap)를 한꺼번에 지정
- flex-flow: <플렉스 방향> <플렉스 줄 배치>

order 속성

- 배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속성
- order: 0 | 숫자

flex - 플렉스 항목 크기 조절

- flex : [<flex-grow> <flex-shrink> <flex-basis>] | auto | initial

속성값	설명
<flex-grow> <flex-shrink> <flex-basis>	플렉스 항목의 너비를 얼마나 늘일지 숫자로 지정합니다
	플렉스 항목의 너비를 얼마나 줄일지 숫자로 지정합니다
	플렉스 항목의 기본 크기를 지정합니다. width 속성처럼 너비 값을 지정할 수도 있고 0 이나 auto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. 0일 경우, flex-grow와 flex-shrink의 인수 값을 함께 사용하고 auto 일 경우, 플렉스 항목의 너비 값을 사용합니다.
initial	항목의 width/height 값에 의해 크기가 결정되는데 플렉스 컨테이너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, 최소 크기까지 줄입니다.
auto	항목의 width/height 값에 의해 크기가 결정되지만 플렉스 컨테이너 공간에 따라 늘이거나 줄입니다.

justify-content

- 주축 기준의 배치 방법 지정하기
- justify-content: flex-start | flex-end | center | space-between | space-around
- <https://developer.mozilla.org/en-US/docs/Web/CSS/justify-content>

align-items, align-sel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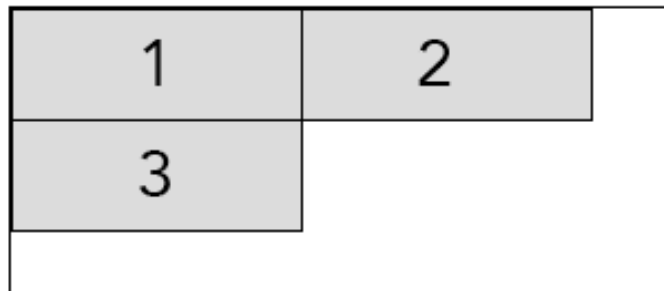
- align-items: stretch | flex-start | flex-end | center | baseline
- align-self: auto | stretch | flex-start | flex-end | center | baseline
- <https://developer.mozilla.org/en-US/docs/Web/CSS/align-items>

align-cont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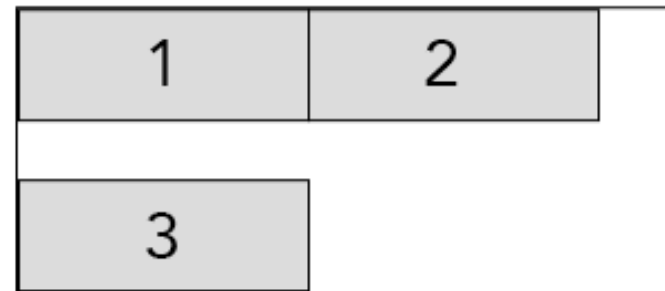
- 여러 줄일 때 배치 방법 지정
- align-content : flex-start | flex-end | center | space-between | space-around

align-cont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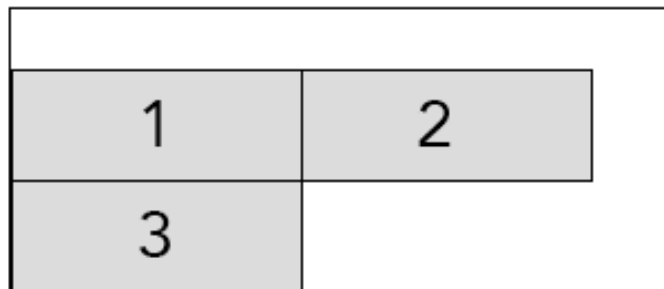
align-content : flex-star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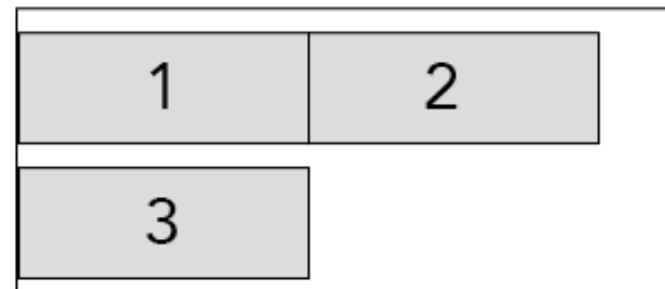
align-content : space-betwee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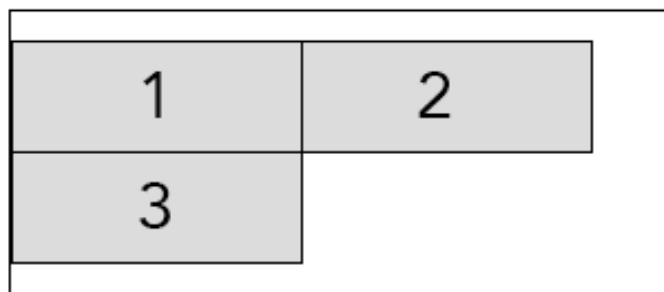
align-content : flex-end



align-content : space-around



align-content : center



flex in bootstrap4

<http://getbootstrap.com/docs/4.0/layout/grid/>

A Complete Guide to Flexbox

<https://css-tricks.com/snippets/css/a-guide-to-flexbox/#flexbox-background>

실습

미디어다음

메뉴1	메뉴2	메뉴3
-----	-----	-----

[단독] 김관진 "사이버사 댓글부대 운용, MB 지시 받았다"

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것인가...가늠하긴 지금으로써는 어렵지만, 수사선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은 맞습니다. 1박2일 동안 뉴스를 만들 어내고 떠난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 소식이 아닌 이 소식을 첫머리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는 첫 진술이 나왔습니다. 어제(7일)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사이버사령 부의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검찰은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 니다.

특히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70여 명을 뽑는 과정에서 이른바 호남 출신을 배제할 때 도 "우리편을 뽑으라"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. 검찰이 '대선 댓글 수사'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건 처음입니다.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

먼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많이 본 뉴스

1. ["따뜻한 느낌이 없다"..즉석에서 만찬 사 수정한 트럼프](#)
2. ["반려견 입마개 안 채웠다고 폭행당해" 20대 여성 경찰신고](#)
3. [홍종학 "백종원 '더본코리아', 中企 지 위 박탈 검토"](#)

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,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Copyright © Kakao Corp. All rights reserved.

<https://goo.gl/RFZXMQ>